

[굿모닝충청] 미래한국 핵심역할 대전 바로 아는 선각자 필요 핫뉴스

2013. 6. 24. 18:03

<https://blog.naver.com/gmcc1/100190601890>**미래한국 핵심역할 대전 바로 아는 선각자 필요** [시사프리즘·특별기고] 김동화 한밭대 헝가리 부다페스트공대 방문교수

김동화 | .

승인 2013.06.23 13:50:51



김동화 교수

대전은 미래 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도시다

넓은 한밭에 불과하던 대전이 한걸음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일제시대에 공주에 있던 도청이 이전 되면서 부터이다. 당시 한국의 중요한 항구 역할을 하던 강경, 70년대 개발초기의 마산수출자유지역 등의 도시는 세월과 함께 그 역할이 줄어들어 아주 작은 읍으로 변하거나 그 위상이 미미하게 되었고 당시 인재양성의 요람이던 강경상고, 마산상고, 선린 상고 등 명문고들은 '정보고'라는 이름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모두 어떤 산업이 경제에 중추적인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일어난 변천사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대전시와 연구단지

대전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계기는 70년대 대덕 연구단지를 건설되면서 부터이다.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대단위 연구단지가 허허벌판 산골짜기에 들어 선 것이다. 통치권자의 발상은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입지를 선택한 것인가? 그 대덕 연구단지가 지금은 대전시의 일원이 되어 대전이라는 곳이 단순 상업적, 교통적 역할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첨단 과학의 메카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켈캄사의 통신방식을 적용하여 현재 삼성전자 매출 70%를 담당하게 만든 곳도, 전자교환기를 개발 한 곳도 대전의 연구소이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형 비즈니스 과학벨트가 더해진다.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만 따지고 있으니 대전의 미래에 대한, 아니 현재의 정책은 어디에 있나? 대전시의 정책은 늦어도 너무 늦다. 그저 허둥만 대고 있다.

- 대전시와 세종시

그런데 대전이 한 번 더 한국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기회가 왔다.

국무총리 실을 비롯한 많은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것이다. 세종시가 지금은 분리되어 있으나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시 일원이 되듯이 곧 세종시는 대전시 일부로 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거리가 불과 20분 거리일 만큼 단거리인데다 두 도시 사이에 벨트가 형성되면 언젠가는 효율성 때문에 굳이 행정적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자체들의 효율성문제는 거론되고 있다.

세종시는 대덕연구단지의 위상과는 다르다. 대덕 연구단지는 연구비를 집행하고 그 종사자들의 생활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국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중앙부처이다. 한국의 정책, 예산을 기획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중앙정부가 대전 인근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 고민 한번 해 보았는가!

- 대전시와 백제문화권

관광자원으로 보면 대전만큼 유리한 곳도 드물다. 계룡산은 한국의 명산중의 명산이다. 또한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 문화권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 유적도 매우 많다. 이런 역사적 유산물을 단순히 그 지역의 것으로만 치부해야 할까? 연계된 정책을 한번 생각 해 보았는가?

- 대전시와 계룡대

계룡대는 중앙 군사 도시이다.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어떤 축제, 어떤 조직이 들어와 있는지! 유통, 유통인구는 어떤지? 대전시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차별화된 정책, 연계된 정책만 발굴하면 대전시의 경제 발전과 자긍심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 대전시는 한국의 교통 요충지이다

대전이야 말로 교통의 천혜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이다. 도시가, 문명이 발달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교통이다. 로마가 500년을 통치 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복지와의 소통을 위해 교통수단을 잘 개발한 덕분이다. 대전은 고속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 어느 곳에 서나 접근성이 뛰어나다.

공항노선은 어떤가! 청주공항은 국내의 어디를 갈 수 있도록 시작한 국제공항이다. 그런데 이 장점을 못 살리다보니 작은 공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인근의 지자체들은 이와 같은 좋은 입지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 못하고 단순히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린다. 동기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시가 발달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공항은 필수이다. 무역, 국제전시, 학술대회 등이 활성화되어야 지역 경제가 산다. 공항하나 유치하고 건설하는데 얼마나 복잡한 정책적 결단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만들어 주어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

노태우 대통령시절 개최한 엑스포 시설물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방치하다가 지금 와서 그 활용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난상토론이다. 대전시는 제대로 된 정책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중앙부처 눈치나 보다 이 지경까지 왔다. 대덕연구단지에는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중앙과학관이 있다. 그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해 어떻게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 할 것인지 생각은 해 보았는가? 그저 초등학생들 학습차 다녀가는 일시적인 미미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 대전시는 방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국내는 서울(50분거리), 천안, 아산 등은 물론 국제적으로는 두시간 이내에 1천만을 넘는 도시가 6개, 1백만을

넘는 도시가 41개나 된다.(중앙일보 : 2012년)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니 국내외의 부호들에게 입지여건만 잘 설득하고 발상만 잘하면 천문학적 투자 유치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대전을 작게만 보면 미래는 없다.

대전의 미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70불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지구역사상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여 대전시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후진국 교육 프로그램, 정책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세종시가 왔으니 더더욱 명분이 선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선거철 때만 되면 대전 시민들은 대전을 홀대 했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 했는가?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스스로를 일구겠다는 생각과 실천은 하지 않고 중앙정부 눈치나 보고 남의 탓만을 해온 것은 아닌가? 70년대는 한국이 필리핀으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를 갔던 적이 있다. 그런 필리핀이 환경이 나빠서, 국토가 좁아서, 바다가 없어서 지금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가?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리핀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부를 만나지 못하고 그저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리에만 눈이 어둡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대통령만 산출했기 때문이다.

경제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제조업이었던 시절은 농토가 적다거나, 비탈길이라든가, 가뭄이 심하다는 등 환경을 탓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및 미래 경제,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키워드는 정보통신, 지식산업이다. 이들 기술은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반면, 환경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오로지 시장과 기술, 기술개발을 위한 고급인력만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급인력들이 자유스럽게 활동 할 수 인프라와 이들을 결해주는 교통은 필수이다. 대전시는 고급인력이 모일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은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이를 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대전을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대전은 한국의 중앙부에 있다.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이다. 편리한 교통을 이용해 중국, 동남아로 진출하겠다는 발상만 하면 정보통신, 지식산업 활동 결과물들을 수출.입하기에는 최적지이다. 대덕 연구단지와 인근의 벤처기업 결과물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어서 청주공항은 중요한 수출 관문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대전의 이와 같이 좋은 지정학적, 정책적, 환경적 내용을 잘 활용하고 인식하는 인재가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장과 한 두 차례 만나 일상적 회의나 하고 기관간 실무자 소통만 하는 차원의 정책으로는 절대 대전의 입지를 살릴 수 없다. 여기서 정보통신분야에서 가장 큰 혁신을 일으킨 스티브 잡스가 스텐포드 졸업축사에서 한 연설을 소개 하고 싶다.

오늘 당신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가? 바로 다음을 생각 하면 적당히 처리하여 말썽이 없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굳이 큰일을 저질러 말썽을 일으킬 필요 없다. 일하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지탄받을 일도, 속 썩을 일도 없다. 일상적 생각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이젠 대전은 너무 켜져 있고,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대전만큼 완벽하게 발전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도시도 세계적으로 없다. 이 좋은 도시에 제대로 된 맞춤형 정책을 크게 눈 뜨고 개발하여 실천하는 것만이 대전 경제를 살리고, 후대에게서 두고두고 원망을 듣지 않는 길이다.

< 저작권자 © 코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